

나주 월정서원, 청림유적지로 재탄생

사암 박순 선생 위패 모신 서원 나주시·혁신도시 5개 기관 힘모아 노후 시설 정비·청림 성지화 착수

조선 중기 명재상이자 청벽리로 이름을 떨친 사암(思庵) 박순 선생(1523~1589)의 위패를 모신 나주 '월정서원'이 대대적인 보수·보강을 통해 청림 유적지로 재탄생한다.

나주시는 최근 노안면 광곡마을에서 '월정서원 청림 유적지 조성사업' 착공식을 갖고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함께 월정서원 청림 성지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박순 선생은 퇴계 이황과 동시대 인물로서 권력과 재물을 탐하지 않고 바른 정치를 위해 늘 임금에게 직언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월정서원 청림 유적지 조성사업은 나주시를 비롯해 나주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전력거래소, 사학연금공단, 한전KDN,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업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5개 기관이 예산을 분담해 추진한다.

연말까지 도비·시비·공공기관 지원금 등 6억원을 투입해 보수가 시급한 사당과 내삼문을 해체 보수하고 주변 담장을 정비해 청림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장으로 문을 연다.



윤병태(왼쪽) 나주시장이 '월정서원 청림 유적지 조성사업' 착공식 후 월정서원을 둘러보고 있다.

월정서원은 조선 중기 문신이자 영의정, 좌의정 등 14년간 재상을 지낸 나주 출신 사암 박순 선생을 추모하기 위해 나주 금성산 월정봉 아래에 1659년 창건됐다.

이후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 훼철령에 따라 철거됐으나 1974년에 현재 위치로 옮겨 복원됐다. 하지만 지붕 누수, 복재 부식, 담장 붕괴 등 노후

정도가 심각해 대대적인 보수·보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청림문화 확산에 힘을 모아 준 공공기관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월정서원의 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지역사회의 청림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리모델링 공사' 나주시보건소 민원업무 재개

나주시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건물 새단장(리모델링) 공사로 중단된 보건소 핵심 민원 업무를 재개했다.

나주시보건소는 한시적으로 중단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혈액검사, 물리치료, 기타 제증명 서류 발급 업무를 지난달 30일부터 정상화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는 오는 11월 말께 준공 예정이지만 요식업소 종사자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 민원 업무를 기존 보건소 건물 2층에서 우선 재개했다.

외부 유관 업체와 민원인 방문이 잦은 보건행정과 업무도 보건소 2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강동렬 나주시보건소장은 "보다 나은 보건의로



나주시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조감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일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공사 완료 시까지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담양 명품숲,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선정

죽녹원·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길 전국 916곳 건강·접근성 등 평가

담양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산림청이 주관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選)'에 선정됐다.

산림청은 숲 속에 숨겨져 주는 도시숲의 가치와 각 도시에 조성된 숲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살+숨=도시숲'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도시숲 50선을 선정했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국민 추천을 받은 전국의 도시숲 916곳을 대상으로 대국민 선호도와 접근성, 생태적 건강성, 이용 정도, 경관적 가치, 차별성 등을 기준으로 최종 50곳을 뽑았다.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로 이어지는 도시숲은 폭염과 도시열섬, 미세먼지 등을 개선하는 기능과 심리적 안정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도시숲으로 인정 받았다.

도시숲은 도시 중심보다 여름철 한낮 평균기온이 3~7도 정도 낮고, 평균습도는 9~23% 높아 도시열섬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며, 미세먼지를 평균 25.6%, 초미세먼지는 40.9%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세



담양의 명품숲, 죽녹원(윗줄 두장)과 이랫줄 왼쪽부터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로수길이 국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전국 제일의 숲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농협 함평군지부와 나비골농협 임직원들이 함평군 해보면 돌봄 대상 가정의 찾아 오래된 조명을 바꾸고 있다. <농협 함평군지부 제공>

농협 함평군지부, 9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농협 함평군지부와 나비골농협은 지난 7일 함평군 해보면 9가구를 대상으로 농촌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는 농협중앙회 사회공헌단 '농업인 행복콜센터'에 등록된 돌봄 대상 9가구를 선정했다.

봉사단은 고령 농업인과 취약계층 9가구를 찾아 오래된 백열등을 LED 조명으로 바꾸고 전기시설 안전점검, 누전 차단기 교체 등을 진행했다.

농업인 행복콜센터는 전국 고령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꾸준히 안부 전화를 거는 서비스도 펼치고 있다.

김영철 나비골농협 조합장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농업인·지역사회와 온기를 나누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강진군민장학재단, 하반기 장학생 108명 선발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장 강진원)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4년 하반기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 분야와 대상 인원은 ▲성적우수 42명 ▲복지 16명 ▲다자녀 27명 ▲다문화 5명 ▲한부모·가정위탁 4명 ▲귀농인 자녀 3명 ▲특기자 5명 ▲장학 학생(특수·늦봄·성요셉) 분야 6명 등 8개 분야 최대 108명이다.

장학금 규모는 1억3290만원이며 초등학교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은 최대 200만원(관외고 졸업 대학생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특기자 분야는 초등학교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이다.

신청 자격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강진군 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관외고 졸업 성적우수 분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